



卷 頭 言

國立公園協會 會長 金 允 基

해마다 보내는 한해이고 맞이하는 새해이지만 보내는 1976년과 맞는 1977년은 저마다의 별다른 뜻이 있다.

저른해 1976년은 우리 모두가 心血을 기울인 第三次經濟開發五個年計劃이 成功的으로 完遂되어 잘사는 겨레 富強한 나라의 기틀을 確固히 다진 한해였고 史上類例 없는 大豐은 總和維新的 結束과 새마을運動의 보람이 피어 오른 한 해 였다.

國立公園運動에서도 새로운 國立公園이 指定 되었고 國立公園을 中心으로한 開發과 利用이 本格化 되는가 하면 자취를 감추었던 動物·昆蟲이 모습을 나타내는가 하면 바다속에서 몇百年前의 文化財가 솟아 오르기도 하였다.

참으로 보람차고 瑞氣 가득한 한 해 였었다.

겨레의 알차고 誠實한 進軍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것인지 社會一角의 不條理와 沒知覺이 드러났고 國立公園 第1號인 智異山이 盜伐의 受難을 겪었지만 이를 歲暮의 不淨한 일들일랑 묵은해의 쓰레기가 밀리는 것으로치고 그런 일들이 감춰지지 않게된 것을 오히려 多幸스럽게 알고 이제 우리도 成熟되어 간다는 自負心을 갖게 되었다.

새해 1977년은 우리가 前에 없이 큰 希望과 期待 속에서 맞는 新年이 된다.

第4次經濟開發五個年計劃期間의 첫해로서 우리가 中進國의 무리에서 벗어나 先進國際列에 들어서느냐의 기틀을 다지는 第一步가 되며 1981年으로 豫定했었던 100億弗의 輸出을 達成하므로써 國際社會에서 두드러지게 뛰어날 수 있어야하는 해이고 그렇기 위해 우리 모두의 覺悟와 總和가 더욱 굳세야 할 新年이다.

國立公園運動에 있어서도 國際水準의 公園利用基盤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다 알맞고 올바른 利用과 保全에 힘쓰고 우리 祖上이 물려준 錦繡江山을 알뜰히 하므로써 그 속에 간직된 生態系의 온전한 利用을 또하나의 國民運動으로 定着시켜야 할 新年이다.

國立公園運動은 몇사람의 힘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全國民의 마음 속에서 착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特定機關의 先導로서가 아니라 全國民이 共同步調로 進展되어 가고 있다.

우리 國立公園協會는 이를 보다 알차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될 일을 찾아 媒介體가 되기 위한 努力을 더욱 充實히 해야하며 그 役割이 더욱 重要해질 새해를 맞이하며 뜻을 같이하는 여러분들의 聲援을 바라고 삼가 새해의 幸福이 家庭마다 가득하시고 우리나라의 힘찬 發展을 祈願한다.